

오륙도 칼럼



심 득 순

연말연시, 일본 열도 오사가 3색 테마 여행을 떠났다. 낯선 곳 여행 길은 언제나 설렌다. 간사이공항에 내려 청사 밖을 나오니 색다른 이국 풍경에 심장 고동소리가 빨라졌다. 크리스마스 시즌 한차례 불어 닥친 혹한에 떨다 찾아온 오사가 거리는 날씨가 따뜻해 기운이 넘쳤다. 예약된 호텔에 여장을 풀어놓

고 관광에 나섰다. 간사이 스루 패스로 지하철과 기차를 번갈아가며 타고 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오사가, 나라, 교토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3박 4일 여정이 땀뻑한 듯했다.

나라시 동태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공원에서 생긴 일이다. 이방인 엉덩이를 뚫다 들이박는 왕방울 눈을 가진 사슴 한 마리. 그냥 지나치기에는 참 맑은 눈빛이라 인근에서 파자 한 봉지를 사들고 한 조각씩 떼어 입안에 쏙쏙 넣어주었다. 더 달라고 어린이처럼 조르는 사슴이 정말 사랑스러워 또 한 봉지 사서 기분 좋게 인심을 띠락 썼다. 남들날을 받아먹는 남작한 파자가 맛있어 보여 나도 한 조각 입

에 살짝 넣어보았다. 입안에 착 달라붙는 그 맛. 유년의 찬란했던 그림자, 하얀 눈처럼 기억이 선명한 선배이라는 파자였다. 종작없이 기억에 깊숙이 파묻힌 그리운 옛날이 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시던 날, 이따금 노란 봉지에 옛날과자를 가득 채워 우리 4남매 앞에 내밀어주곤 하셨다. 참깨나 김이 한쪽 끝에 묻어있던 알고 바삭바삭한 파자 한 봉지를 겨울 긴긴 밤, 따뜻한 아랫목 두터운 이불 밑에서 다리를 포개고 앉아 맛있게 먹던 일. 파자가 일에서 바스락거리며 녹아들 때, 찰랑거리던 우리 형제간의 애뜻한 정이 어린 나에게도 철철 휘감겨들

었다. 우리는 파자를 한 개씩 치켜 들고 누가 빨리 먹나 시합도 했다. 이불 밑에서 발을 꼬지락거리며 내 다리 네 다리 우겨대며 차오르던 명랑한 웃음소리가 방안을 휘돌아 외풍에 이웃집 담을 넘어갔으리라. 그 시절 전량량이 부족해 집곶하면 전기가 나가 캄캄한 방안에 촛불을 켜놓고 하던 손 그림자놀이. 큰오빠는 토끼, 작은 오빠는 강아지, 동생과 나도 골짜기 따라 흥내를 내곤 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큰오빠가 취직해 첫 봉급을 받은 날, 금직한 봉지 속에 납치도록 파자를 사들고 보무도 당당하게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와 입안이 금금한 동생을 앞에 딱히니 부러 놓아 주던 날도 떠올

랐다. 동생들을 품시 아껴주던 큰오빠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던지 내 친구들 앞에서 오빠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우리는 그날 질리도록 파자를 먹고 또 먹었는데 봉지에는 파자가 남아돌아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까지 먹던 날이 이제는 사무치게 그리다.

아버지께서 사주시고 큰오빠가 사 주던 옛날과자를 여행 길목에서 다시 만나 맛볼 수 있어 감개무량했다. 한 식구가 한 시절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이 눈앞에 아롱거려 가슴이 벅차고 시려와 눈물이 차올랐다. 어렸을 때 접했던 그런 단편들이 이제는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추억거리로 남아 있다.

수년 전 부모님도 타계하고 큰오빠도 황급히 부모님을 뒤따라 가버렸다. 훨훨 날개를 단 세월은 여섯 식구를 반 토막으로 잘라버렸다. 작은 오빠와 나는 여기 부산에서, 동생은 먼 타국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나의 현재를 더욱 깊게 해 주던 지난 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 때때로 마음이 딱딱해 지기도 한다.

고소한 파자 향에 사슴이 때로 물러들어 내 곁에 바삭 따라붙었다. 한 봉지 더 사서 후하게 인심을 썼다. "아기들아! 많이 먹어라, 먹고 또 먹고 대한민국 부산 여자 잇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해!" 초롱초롱 빛나는 왕방울 눈빛에 내 얼굴을 들이밀고 속삭거렸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싸구려 기념품이 아닌 정신의 생활필수품으로 남아 올린 한 편의 좋은 영화 같은 여행이었다.

수필가·대연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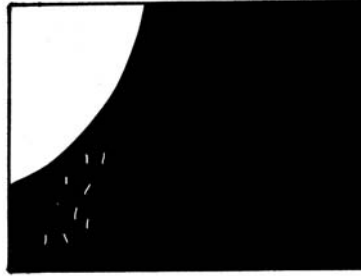


<192>

채 규 중



2012 달맞이축제

남구민 모두분
대박 나세요!

영동 백운포 체육공원



선용의

1000자 지혜

올바른 방법

말을 잘 다루는 명수로 송보(宋保)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송보가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저쪽에서 수레를 탄 아버지와 아들이 오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 무엇인가 놀란 듯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에서 내려 혹시 바퀴가 고장났나 하고 보았지만 멀쩡했다.

"아버지, 말이 갑자기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 역시 고개를 가우뚱거리다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또 그 나쁜 버릇이 나왔군! 이놈은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움직이지 하지 않거든, 네가 재갈을 붙잡고 앞에서 끌어라. 내가 뒤에서 수레를 밀어 붙여나."

아들은 말 재갈을 붙잡고 열심히 끌고, 아버지는 뒤에서 수레를 힘껏 밀었다. 그런데, 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레가 조금 흔들릴 뿐 말은 발을 댄 생각을 안했다.

한동안 그렇게 해도 말이 꼼짝하지 않자, 아버지는 송보를 보며 부탁을 했다.

"여보시오, 보시다시피 말이 똥 말을 듣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거들어 주시겠습

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니 말의 고삐가 너무 조여 앞을 잘 볼 수 없게 되어있군요. 말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배를 묶어서도 잘 가지를 알죠."

"네도 부르게 먹었고 고삐도 느슨하게 해주었는데도..."

"그렇다면, 두 분이 먼저 수레 위에 타십시오. 제가 몰아 보겠

습니다."

송보는 먼저 두 사람을 수레에 태우고 자기도 앞론 올라탄 뒤 말의 고삐를 잡았다.

그러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은 뚝뚝뚝 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송보는 말을 부리는 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한 기업체와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이 끌고, 다스리고, 부리는데도 올바른 방법이란 것이 있다.

올바른 방법, 즉 정도(正道)를 벗어나 자기만의 길로 강압적이고 억지로 이끌어 나간다면 배는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없으며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이 뻔한 일이다. 곧 충선과 대선이 있다.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바른 길을 알고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번역문학가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달력 너무 고급스럽다

새해와 더불어 각 가정마다 새로운 달력이 걸리고 있다. 기업 등에서는 경기침체로 달력제작이 어렵다 고들 하지만 달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달력을 보면 너무 고급스럽고 화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런 달력이 꼭 필요할지 의문이다.

좋은 재질의 달력보다는 보다 실용적이고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나 가게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종이원료를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에 비해 볼 때 낭비와 과소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달력을 제작하는 회사에서는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만큼만 제작하고

너무 비싼 지점의 고급용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남이(문현4동)

소외계층에 온정을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는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시기는 소외계층에게는 건디기 힘든 고난의 나날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각종 성·금품이 담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도 온정이 이들의 추위를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듯 싶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영세민들을 위한 남구동행푸드

조상영(영호3동)

음란 전단지 단속해야

얼마 전 동네를 거닐다 깜짝 놀랄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아이들이 딱 지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딱지가 브라지어와 팬티만 걸친 여성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놀이에 음란 전단지가 버젓이 끼여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독자의詩

채소장사 할매부처

이동만(영호3동)

길가에 좌판도 없이 채소 파는 할머니
오늘은 공지는 날 마수도 못뚫네
270자로 된 반야심경 외우는가
치맛폭에 담긴 구겨진 삶 어루만지며
평안보고 앉아 있네 할매부처처럼

옛날 시골장터에서 배추사이소 가지사이소
내 가지(加持) 몽땅 데리미 해가이소
고래고래 고환치던 울음이 생각나네
쭈구리고 앉아 채소 파는 할매부처
영안 울음이 닳았네

지속적인 교통단속 실시

남구청 앞 좌회전 허용 구간 불법 주·정차 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의 교통단속과 밀면집 앞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자는 대연5동 유경희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연고개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2011. 12. 8일부터 좌회전이 허용되면서 이 구간은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차 단속반을 강화하여 주·야간 운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를 완전히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지속적인 순찰과 주차단속 강화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을 통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밀면집 앞 5지교차로는 당초 신호부여로 운영되었으나 차량정체 등 교통흐름에 어려움이 많아 자율신호로 변경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정찬온>

■ 살며 생각하며

밥 한 그릇의 추억



이 덕 순

몇 해 전이다. 딱 지금 같은 날씨에 이맘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 집은 대로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와야 하는 주택이다 집으로 가는 길은 계단이 유난히 많아 나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거의 기다시피 경건거리며 올라가는 곳이다. 그날은 열려있는 대문 틈으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와 나가

보았더니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두른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마치 사진에서나 보았음직한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의 영락없는 그 모양새다. 금세 쓰러질듯 힘겨운 모습으로 서 있는 할머니. 혹시나 집을 잘 못 찾아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말을 건넸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계단이 힘겨웠을 텐데요"

"아, 기어서 올라왔어요.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순간 낯선 사람이라 두렵고 얼떨떨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

"배가 고파요. 밥하고 김치만 조금 주세요요."

말투는 점잖아 보이는데 공색한 모습이라 금금증이 일었지만 경계할 사람은 아니다 싶었다.

"일단 좀 들어와 앉으세요. 할머니." 신발을 벗으면 뽕새가 하고 집을 더럽힌다며 극구 사양을 한다. "괜찮아요. 할머니. 올라오세요"

"나, 여기 조금만 걸터앉아 먹으면 되요. 그냥 김치 조금하고 밥만 주요."

난 결국 조그만 상을 차려서 현관문 앞에 드러야 했다. 밥을 보고서는 며칠 굶은 듯이 허겁지겁 드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눈을 피해야만했다

"편안하게 천천히 드세요"

나이가 들면 밥 힘으로 산다는 말도 있던데... 밥은 곧 생명 줄인데...

밥은 물론이요 반찬까지 남김없이 조그만 체구의 할머니가 많은 양을 어떻게 드셨나 싶었다.

"고맙소. 정말 잘 먹었어요."

"할머니 물도 드시구요. 근데 어디서 오셨나요?"
"양산에서" "자제분들은 없으세요?"

"있어요" 하지만 딸가 될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싶어 더 묻지는 않았다.

"양산이면 어떻게 가시려구요?"

"외출을 하는 날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나가야해요 갈 데가 없어서 오다보니..."

"차비도 안 되잖아요. 돌아갈 차비는 있으세요?"

"모자라요. 이제 남은 돈이 몇 천원 밖에 없어서..."

머리를 가로 켜는 할머니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진다.

나 역시 곤한 사람이었기에 국밥 한 끼를 사먹을 정도의 돈밖에 쥐어 드리지 못함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렇게 한참을 머물러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제는 가야겠다며 할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기어올라 오셨다는 말이 참 마음이 아팠지만 내려가는 길이나 아까처럼 힘들진 않을테지 "조심히 잘 내려 가세요" 하니 고

맙다고 또 인사를 건넨다.

할머니는 우리 집을 벗어나서도 길모퉁이에 얼굴을 두고 이쪽을 보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계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어린 기억을 나는 회상하며 그때에 왜 잡지 못하였을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진 않을 까"하며 기다려본 적이 있다.

힘들게 높은 언덕 집을 찾아와서 해설처럼 가 버렸고, 어느날 문득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고 떠올려지는 날이면 그 할머니가 혹시 전사는 아니었을까 반문해 보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대할 때는 처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처럼 열과 성을 다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품는다. 밥 한 그릇의 감동! 그것은 받는 이 보다 주는 이가 더 깊은 감동이 어리는 법이다.

기억 속에 있는 그분은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일생을 사시길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뵈고 싶어진다.

시인·감만2동

■ 나의 생각

학교폭력 근절에 힘모을 때



여 태 금

최근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의 총포화, 다량화로 가해학생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공권력 투입, 구속수사강화, 가해자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과연 교육보다 사회적 격리의 처벌 위주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퇴학당한 학생은 거리에서 비행을 일삼고 강제전학 처벌을 받은 학생은 전학 한 학교에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학 보내도 소용없어요. 학교에 대한 반감만 가지게 되고 어차피 전학가도 새로운 일진과 만나 문제행동을 하게 되요. 어떤 처벌보다 상담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작년 강제전학 처벌을 받고 올해 중학교 졸업을 앞둔 박모(16)양의 이야기다. 형식에 국한된 대책을 세우기 앞서 왜 이러한 극단적인 청소년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분석이 우선 되어야 한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뒤로 밀려난 인성교육,

맞벌이가정·위기가정증가로 인한 가족 간 유대감약화, 충동·폭력을 조장하는 온라인게임, 대중매체의 언어폭력·신체폭력 장면노출,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등 어쩔 이변 학교폭력사건은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학교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싫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친구와 어울리면 다른 아이들이 나도 따돌림해 봐 그 친구가 내 옆에 오는 게 두려워요" 최초(15)양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왕따를 당할까 봐 왕따에 가담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하루아침에 왕따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일이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해자, 피해자가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가 가해자, 가해자가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쏜,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헐뜯, 욕설, 집단따돌림의 폭력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해학생의 경우 가정폭력 노출·부부갈등 등의 가정불화, 조손가정의 훈육 부재와 같은 가정 내에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시간을 확보하고 평소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일선교사들은 문제아라는 딱지를 시선을 자제하고 장점을 발견해 칭찬, 격려와 같은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놀이문화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 및 치우개산, Wee센터 내 정신과전문의 상주, 사전예방교육, 대중매체의 폭력장면노출 자체, 게임산업규제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 마련이 요구된다.

기자·상당교사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고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